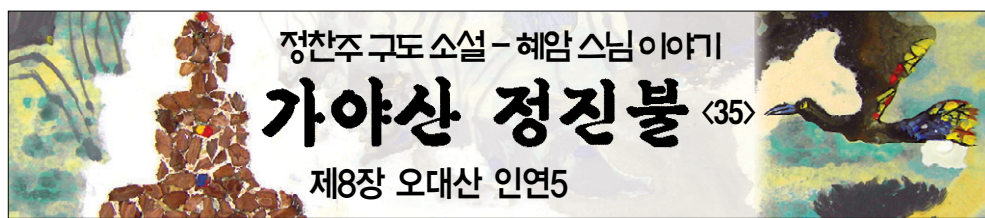


# “고기 움직이니 물 흐려지고 새 나니 깃털 떨어진다”



인곡은 1961년 초여름 이후 내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누운 채 미질을 얹으며 문병은 제자들을 맞이했다. 자리에 누운 지 벌써 스무 날째 곱기를 끊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다고 시자와 문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도선사 주지이면서 당시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하던 청담이 스님을 보내기도 했다. 청담은 그 스님에게 인곡을 문병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도록 했던 것이다.

“스님께서 몸을 버리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인곡은 한동안 침묵으로 대답했다.  
해암은 이때 인곡을 직접 간병하지는 않았다. 간병하는 시자가 이미 두세 명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곱기를 끊고 있는 동안에도 인곡은 맑은 정신으로 제자들에게 짧은 법문을 했다. 하안거 해제 전날, 그러니까 자신의 입적 전날에는 문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는 말했다.

## 인곡 스님, “보름날이 좋다” 시자들 권유에 입적 하루 연기 지극정성으로 49재 모신 해암 다시 오대산에서 ‘용맹정진’

“고기가 움직이니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나니 깃털이 떨어진다(魚行水濁 鳥飛毛落).” 수행자로서 중생제도를 못하고 세상에 빛을 쬐다는 뜻이기도 했다. 문도들이 의미심장한 인곡의 말에 긴장을 더 하자, 인곡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이 십사일 삭발하는 날이군. 나도 삭발을 해야겠어. 오늘 밤 만물이 잠들었을 때 조용히 갈 것이야.” 그러자 한 시자가 비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께서 가신 후에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주지 자운스님에게 부탁해 놓았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또 다른 시자가 물었다. “입적하신 후에 염불을 하리까?” “내 염불은 이미 내가 하고 가니 나를 위해서 살아 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너희들은 염불하지 말라.” 이에 시자들이 삭발을 해드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다. 한결 기분이 좋아진 듯 인곡이 <중도가> 한 구절을 읊어주었다.

깨방도 할 수 없고 칭찬도 할 수 없음이여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한계가 없다.  
不可毀不可讚 體若虛空勿涯岸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연하니  
찾은즉 그대를 아나 볼 수는 없다.  
不離當處常淡然 覓即知君不可見

그런 뒤, 무릎을 꿇은 채 좌정하고 시자와 문도들에게 물었다. “어째서 ‘찾은즉 그대를 아나 볼 수는 없다’고 했는가?” 시자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말했다. “배고프면 밥 달라 하고 추우면 옷 달라 하고 하니 분

명히 알지만, 그 자체를 찾아보려고 하면 미래겁이 다하도록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방 윗쪽에서 말없이 앉아 있던 해암도 한 마디 했다. “해가대사께서 ‘밝고 밝게 항상 알지만 말로써 미칠 수 없다(了了常知 言之不可及)’ 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말이 더 필요 없구나.”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가야산 계곡을 울리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가깝게 들렸고, 창호에는 달빛이 환하게 어렸다. 시자들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 입술이 바싹바싹 닳았다. ‘오늘 가겠다’는 스승의 입적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흐르는 시간을 붙들고 싶었던 한 시자가 비통하게 말했다.

“스님! 기왕 가실 바엔 오늘은 14일이고 내일이 15일 해제일이며 우란분제일, 아미타제일이니 좋은 날이옵니다. 좀 더 입적 시간을 연장하셨다가 가시면 어떻습니까?”

이에 인곡이 달빛이 어린 창호를 바라보며 답답하게 말했다.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인데, 좋고 나쁜 날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얼마 후에 가겠노라.”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제자가 말했다.

“입중계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사된 사람의 일이나.”

“입적시기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것쯤은 할 수 있지.”

“저희 생각으로도 보름날이 좋고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좋은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보름날 가시도록 하십시오.”

시자의 간청에 인곡은 허락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지요.”

비로소 시자와 제자들은 안도했다. 14일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문도들은 뜬눈으로 인곡의 곁을 지켰다. 겨우 눈을 뜬 인곡이 한 제자에게 물었다.

“묘법연화경 화성유품 제7 가운데 ‘대동지승어래가 10겁을 좌도(坐道)해도 불법이 불현전(不現前)이나라.’는 뜻을 알았느냐?”

언젠가 이 부분을 의심하던 제자가 인곡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곡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야 할 문제라고 답했지만 이제는 알겠느냐는 물음이었다. 아직도 제자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각처로 다니면서 여러 선지식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알려고 애를 썼으나 마음에 계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봉스님에게 가서 물은즉 ‘불법이 불현전이지!’ 하시는데 머리에 무엇이 핑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인곡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一心不生) 만법이 때 묻지 않느니라(萬法無垢)”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계승을 읊었다.

허깨비 꿈과 같은 67년 세월이여  
나 이제 가노니 흐르는 물이 하늘에 뽀침이로다.  
夢幻空華六十七年  
仁谷煙沒流水連天

해암은 수행자로서 인곡의 삶이 바람과 구름 같다고 여겼다. 그림자 없이 스쳐가는 바람과 구름처럼 머문 바 없이 머물다간 인곡이었던 것이다. 인곡에게 선과 교와 율을 겸비한 선지식이라는 것도 추모하는 빛사람의 수사일 뿐이었다. 만법이 무구하다는 것을 보여준 울골과 자비로운 수행자라는 사실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다.

해암은 슬퍼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인곡과 같은 수행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해암은 49재를 지내는 동안 줄곧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오대산으로 향했다. 49재를 지내는 동안 심신이 피로했지만 단 하루도 쉴 겨를이 없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심신은 더 치열하게 수구했다.

문도들이 물이 지쳐 있고, 더구나 오대산은 추우니 해암 사에서 겨울을 나고 올라가라고 만류했지만 해암은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다.

“스님, 해암사에서 겨울 나시고 가십시오. 병이 나면 큰일 납니다. 한 약이라도 달여 드시고 건강을 회복한 뒤 떠나십시오.”

“은사스님의 삶을 생각하면 단 한 순간도 망설일 수 없습니다.”

“남쪽에도 선방이 있겠습니까. 극락암 경봉스님 회상에서 동안거를 날 수도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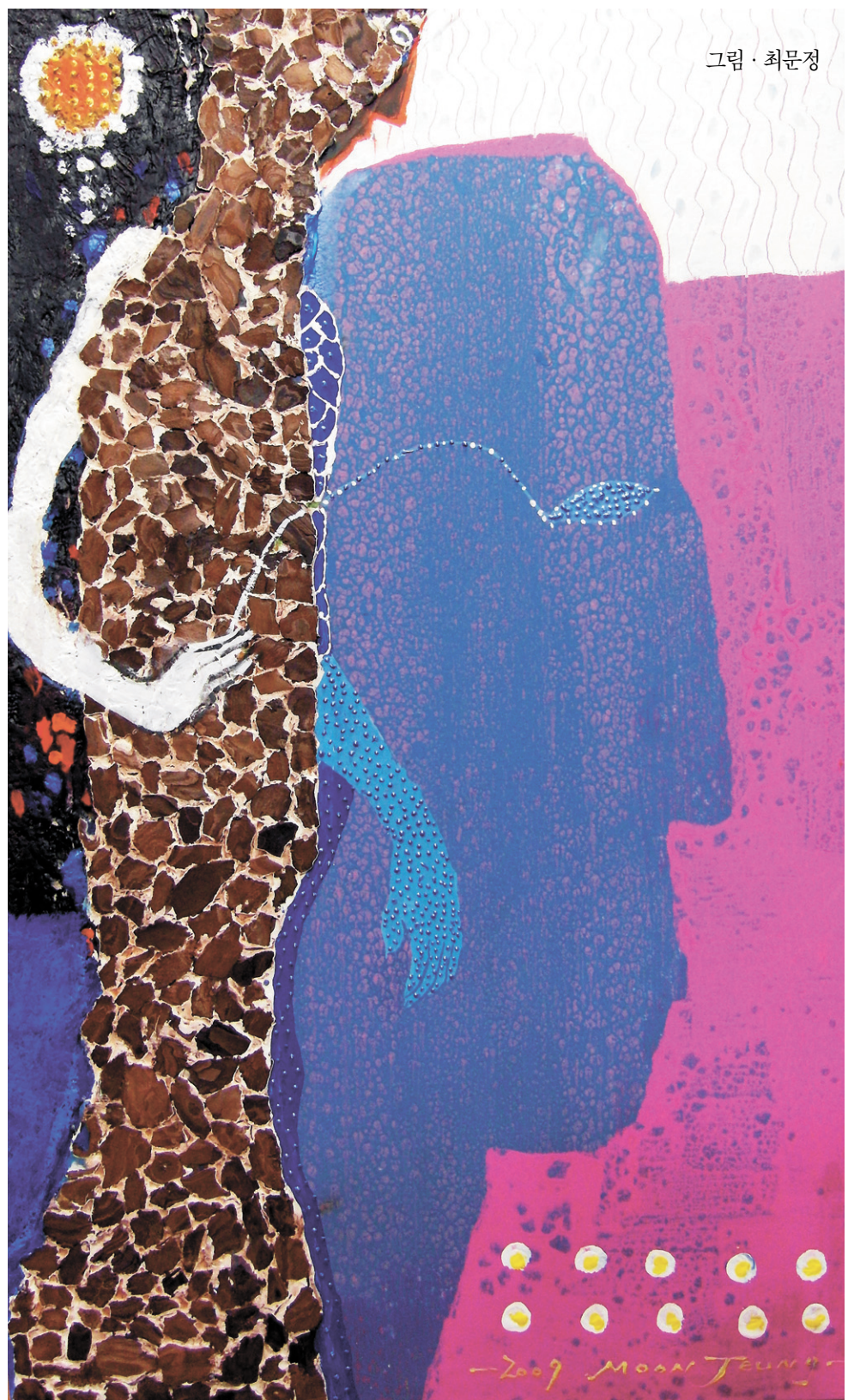
“일찍이 오대산 다섯 암자에서 정진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나와 의약속이기 때문에 저 버릴 수 없습니다. 나와 의약속을 지키고 난 다음에 경봉스님 회상으로 갈 것입니다.”

해암은 결망을 메고 오대산 북대로 갔다. 북대 미륵암은 오대산의 다섯 암자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겨우내 얼음장 같은 곳이었다. 눈이 응달 산자락에 한 번 쌓이면 잔설이 불까지 녹지 않았다. 북대 미륵암이 회오리바람처럼 거칠다면 서대 염불암은 동굴처럼 은밀하고, 동대 관음암은 아침이 상서롭고, 중대 사자암은 부처의 그림자처럼 고구정병하고, 남대 지장암은 극락처럼 편안한 암자였다.

해암이 북대로 바로 간 것은 자기 자신과 다시 한번 더 맞서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암자에서 홀로 정진한 까닭도 그러했지만 이번에는 사뭇 달랐다. 해암은 아무 것도 상관하지 않고 예전처럼 밤낮으로 행선을 했다.

폭설이 내려도 적멸보궁을 다녀왔고, 비가 퍼부어도 마친가지였다. 수미는 이미 극복한 상태였으므로 행선을 하면서 조는 일은 없었다. 일정한 보폭과 빠르기로 무심히 걸을 뿐이었다. 예전에는 자면서 걷다가 계속으로 미끄러지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다.

상원사 선방 수좌들이 장좌불와를 한다며 해암을 흉내 내어 따라 하지만 보름을 넘기지 못했다. 산길을 잘못 들어 행방불명이 되는 바람에 대중들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바위에 부딪치어 강릉의 병원으로 실



려 가는 수좌도 있었다.

그날도 해암은 행선을 나왔다. 폭설이 두어 자쯤 내려쌓여 암자 마당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새벽에 문득 눈앞을 스치고 간 인곡의 잔상이 예사롭지 않았으므로 예정대로 행선을 했다.

코끼리 형상을 한 북대 앞산까지 나갔다. 바람이 쉼돌 불어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래도 해암은 적멸보궁까지 내려갔다. 산길이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지만 해암은 어렵지 않게 상원사까지 내려갔다 다시 적멸보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북대로 돌아오는 어스름 길이었다. 눈앞에 호랑이 발자국이 보였다. 일자로 선명하게 찍힌 짐승 발자국은 틀림없는 호랑이 발자국이었다. 순간 해암은 상원사로 돌아갈까 망설였다. 그러나 곧 그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생사를 뛰어넘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제 아닌가.”

해암은 자신을 시험하고 싶어 호랑이 발자국을 따

라 북대로 올라갔다. 호랑이 먹이가 되더라도 용맹정진해 온 수좌의 면목을 잃고 싶지 않았다.

“살아도 온몸으로 살고 죽어도 온몸으로 죽으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수행자의 삶이 아닌가.”

두려움은 한 순간에 사라졌다. 호랑이가 있던 없건 화두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 과연 호랑이는 북대 초입에 앉아 두눈에 시퍼런 불을 쬐고서 해암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암은 호랑이를 의식하지 않고 걸어갔다.

그러자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길을 비켜주었다. 해암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사라졌다. 해암은 북대로 돌아와 문득 새벽에 스친 인곡의 잔영을 떠올렸다.

“은사스님이 호랑이로 화신하여 나타난 것은 아닐까.”  
이듬해 해암은 남대 지장암으로 수행자를 옮겼다. 이로써 해암은 오대산 다섯 암자 모든 곳에서 정진하는 서원을 성취하게 된 것이었다. <계속>



##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돌 아닌 돌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함동천도재
-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제일)

태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어 대두하여  
영기가 나타날 때까지  
공부를 나타내도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네.  
- 해암대종사 법어 -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